

떠드령산 함박매 흠실 별앗

글 윤재철 시인

떠드령산

외뫼 홀뫼 판뫼 손뫼 날뫼 똥뫼(독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을 이르는 우리말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산들과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들 가운데나 강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산들이다. 흔히 외로울 고(孤) 자를 써서 고산, 홀로 독(獨) 자를 써서 독산으로 한자화되었다. 손뫼 같은 것은 손 객(客) 자 객산, 날뫼 같은 것은 날 비(飛) 자 비산으로 한자화되기도 했다. 외뫼는 외매, 외미, 오미 등 많은 이형태가 있는데, 한자로는 오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런 산은 그다지 높지 않고 작은 동산인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의 풍경과 별로 어울리지 않고 이질적인 느낌을 줘 어디 다른 곳에서 날아와 앉았거나 홍수 때 떠내려왔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런 상상은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부래산 전설 같은 것이 그것이다. 뜰 부(浮) 자에 올 래(來) 자를 쓴 부래산은 말 그대로 떠내려온 산이다. 혹은 날 비 자를 써서 비래산으로 쓰기도 한다. 모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에 흔히 붙어 전해오는 지명전설이다.

양평읍 오빈리와 양근리 사이 강가에 있는 ‘떠드령산’은 부래산을 우리말로 부른 이름이다. 떠들어 온 산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물이 차올라서 떠드령섬이라고 부른다. 행정상 공식 지명은 양근섬이다. 이 떠드령산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경기 양근군)에도 나온다. 산천조에 충주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군 동쪽으로 10여 리 되는 강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려 말의 문신인 한수(1333~1384)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래산 이야기가 나온다. “...다시 10리쯤 가서 말을 쉬고 높은 언덕에 오르니, 외롭게 서 있는 강 가운데 산이 나의 호한한 시야를 가로막네. 이 지방 사람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저것이 본래 충주에 있던 산인데,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정지하였기에 충주산으로 부른다 하네. 동행들은 진실한 말이 못 된다 하여 모두 한 번 꺾꺾 웃었네.”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인 충주에서 떠내려와서 충주산이라 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충주산 이름은 사라지고 떠드령산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

함박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자들의 이름으로 ‘모란’이 등장한다. 얼핏 들어서는 아름답고 고귀한 신분의 여자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동궁전 여관, 사비, 간통한 여자, 역자(驛子)의 딸 등 신분이 낮은 여자들이 이름의 주인공들이다. 이로써 보면 모란이라는 이름이 비교적 흔했고, 주로 서민 대중의 여자들에게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실록 원문에 모란은 모단(牡丹)과 목단(牧丹)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가지 표기가 함께 보이는데 목단이 더 많다. 아마 모란으로 통칭하던 것을 기록자에 따라 모단이나 목단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금 의아하겠지만 모란은 본래부터 우리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귀화어이다. 한자어에서 변형되어 우리말로 쓰이는 귀화어로 지금은 한자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음이 비슷한 것에서 눈치챌겠지만 모란은 한자어 모단에서 온 것이다. 모단이 속음화(유음화)되면서 모란으로 변용된 것이다.

모단에서 모는 수컷 모(牡) 자이다. 꽃 이름에 난데없이 수컷 모 자가 들어간 것은 모란이 주로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이른바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모란꽃은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붉은색 모란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붉을 단(丹) 자를 취해 모단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축을 칠 목(牧) 자 목단 표기가 생겨나면서 혼란스러워졌다. ‘수컷 모’를 ‘가축을 칠 목’으로 잘못 써서 ‘목단’으로 오기한 것은 『삼국유사』부터라고 한다. 신라 때 당나라에서 선덕여왕에게 모란 씨를 보내왔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를 『삼국사기』에서는 모단으로 기록하고 있다.

평양의 모란봉(95m)은 대동강 연안에 있는 산이자 명승지이다. 북한지역정보넷에는 “대동강 기슭을 따라 길게 놓여 있는 금수산에 최승대를 중심으로 서로 잇달려 둥글둥글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 금시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모란봉으로 불린다. 함박메로도 불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봉우리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풍수지리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모란 형국을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란봉이 함박메로도 불렸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함박꽃은 모란과 꽃이나 잎사귀가 비슷해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꽃이기도 하다. 함박꽃은 한자어로는 작약이라 부르는데, 모란은 목작약으로 부르기도 했다. 평양의 모란봉은 이 함박꽃을 모란으로 미화해서 옹근 이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란봉의 함박메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한에도 함박산 또는 함백산이 여러 곳 있는데, 원래 이름을 ‘한뫼(한+뫼+뫼, 크고 밝은 산)로 흔히 본다. 강원도 정선의 함백산은 『동국명산기』에 의하면 함박봉 속칭 모란봉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태백산도 함백산과 같은 ‘한뫼’의 의미로 보는데, 태백산도 작약봉이라 불리기도 했다. 평양 모란봉은 높이는 낮지만 고구려 동명왕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하는 것을 보면 신성한 산으로 여겨 ‘한뫼’라 불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한뫼가 함박메가 되고 모란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흙실

‘흙을 파다’ ‘흙통’ 같은 말에서 ‘흙’이 우리말일까, 외래어일까 물으면 아리송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흙(home)’ ‘흙(platform)’ 등 영어 용례가 많아서인지 자신 있게 답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흙’은 순전한 우리말이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흙’이 ‘물체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로 나오고, ‘흙이 껴다’나 ‘바다에 흙을 파 그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는 용례를 들고 있다. 또한 ‘흙통’에 대해서는 ‘물이 흐르거나 타고 내리도록 만든 물건. 나무, 대, 쇠붙이 따위를 오목하게 골을 내거나 대롱을 만들어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흙-통(흙桶)’이라고 해서 ‘통’은 한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 흙 혹은 흙통을 한자로는 일찍부터 ‘명(楡)’ 자로 썼다. 뜻으로는 물을 이끄는 데 쓰는 골이 진 나무흙통을 가리키는 말로 쓴 것이다. 그런데 이 ‘명’ 자가 국자라는 것이 흥미롭다. 국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한국에서만 쓰인다. 이수광의 『지봉유설』(권7 문자부, 1614년)에서는 ‘명’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김시습의 「유금오록」에 ‘북명사(北楡寺)에서 모란을 본다’는 시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명이란 글자는 중국의 운서(韻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세속에서 나무의 속을 파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즉 방언에 소위 흙(蘆音, 호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호음이라는 표기이다. 명을 방언 곧 우리말로써 흙이라 불렀다는 것이고, 이를 이두식으로 호음이라 쓴 것이다. 호음은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음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 ‘음(音)’은 이두식 표기에서 흔히 ‘ㅁ’을 표기한 것이다. 흙은 보다 쓰기 쉬운 한자 호음(好音)으로 쓴 것이 많다. 김시습 시에 나온 북명사는 『동경잡기』(1711년)에 속칭 명곡(楡谷)이라고 나온다.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楡溪里)에는 흙실마을이 있는데, 전하는 말로는 북명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명곡이나 명계에서 ‘곡’이나 ‘계’는 모두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명곡이나 명계는 모두 우리말 흙골, 흙실을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흙실에서 ‘실’도 ‘골(谷)’을 뜻하는 우리 옛말이다. 전국적으로 ‘흙’ 지명은 아주 많은데, 대개 유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형이 특히 골짜기가 오목하고 길게 패여 흙통과 같은 형상을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에 실제 흙통이 있어 논에 물을 대거나 샘물을 끌어다 쓴 경우이다.

별밭


별밭. 밤하늘에 많은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모습을 밭에 비유한 말이다. 별 하나 하나의 아름다움과 전체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풍성함이 함께 느껴지는 말이다. 이 별밭이 지명에도 쓰여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성전(星田)이라는 한자 지명만 전하고 우리말 이름이 따로 없다. 또한 유래담도 별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별이 떨어진 곳이라든지 하늘의 별과 연관 지어 애



기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벼랑을 뜻하는 별을 하늘의 별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옛말에 벼랑을 '별'이라 했는데, 하늘의 '별'이 벼랑을 뜻하는 '별'과 음이 같은 데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벼랑은 이 '별'에 접미사 '앙'이 붙어 된 말이다. 이 벼랑은 벼루, 벼리, 벼루, 베리, 벼랑, 바랑, 바람, 벼락 등 여러 가지 이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 탓인지 별-벼랑이라는 유연성이 쉽게 사라지고 별을 하늘의 별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에는 별랏(마을)이라는 특이한 지명이 있다. 별앗, 벼랏이라고도 부르는 이 지명은 다른 예가 거의 없거니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전리 별랏은 청주·청원지역의 대표적인 오지마을로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며 정착하여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전체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산비탈에 기댄 밭들이 대부분이며 논은 거의 없다. 주변에 흔한 닳나무로 한지를 만들었고 잡곡과 과일을 주로 소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마을의 지형이나 특히 비탈밭이 많은 특성을 보면 별앗, 벼랏, 별랏이라는 지명은 '별(벼랑)'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별앗, 벼랏, 별랏 중에는 별앗이 원형대로 짐작되는데, 여기에서 별앗은 별밭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밭'의 ㅂ 음은 흔히 유성음(여기서는 별의 ㄹ) 밑에서 탈락하여 '앗'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별밭)별앗)벼랏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별밭의 '별'은 물론 벼랑의 옛말이다. 결국 '별앗'은 '비탈밭'을 뜻하는 '별밭'으로, 한자화되지 않은 채 우리말 형태를 그대로 지니는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워낙 오지인 탓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윤재철

시인. 1953년 충남 논산 출생. 1981년 오월시 동인으로 작품활동 시작했으며, 시집으로는 『아메리카 들소』, 『생은 아름다울지라도』, 『등소화』, 『거꾸로 가자』 등과 산문집 『우리말 땅이름』 등이 있다. 신동엽 문학상, 오장환 문학상을 받았다.